

2017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 초록				
제 목	(한글)일 별 기상요소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분석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영문)Analysis of patterns of hospital utilization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patients by meteorological factors: based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 database			
저자 및 소속	이슬 ^{1,2} , 안광호 ¹ , 김호 ³ , 양윤수 ² , 고민지 ² , 박재은 ¹ , 김재원 ² ¹ 나누리병원 ²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 ³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과			
발표자	이슬	발표자 연락처	(이메일)dlthf1028@naver.com (연락처, 사무실 등)02-6003-9767 (핸드폰번호)010-9779-9673	
진행상황	연구완료() / 연구진행중(V)	발표형식	구연(V) / 포스터()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는 인류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왔다. 이상고열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체의 육체적, 정신적인 반응에 의해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발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심근경색은 겨울에 더욱 빈번하게 발병하며, 겨울철 심근경색 환자들의 내원일수 증가는 낮은 온도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심근경색 환자의 의료이용 및 사망률에 대한 기상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국가별로 다수 진행되었으나, 우리나라 전체 심근경색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심근경색 환자들의 의료이용과 일 별 최저, 최고, 평균기온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자료원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체환자데이터셋(HIRA-NPS) 중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중 주상병이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10(ICD-10) I21.9(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만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기상요소는 기상청 국가기후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혹은 오래된 심근경색증 등이 주상병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일평균/최고/최저기온 및 일교차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상대습도, 평균풍속, 강수량, 신적설량을 교란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일 별 내원 환자 수로 설정하였다. PASW SPSS 21.0을 사용하여 Pearson's correlation 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Independent t-test,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수행하였고, 유의수준은 5%로 설정 후 양측검정을 하였다.				
3. 연구결과 2013, 2014, 2015년 3년 간 급성 심근경색을 주상병으로 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는 총 15,104명으로, 일평균 13.8명이었다. 여성 환자에 비해 남성 환자가 2배 이상 많았으며, 10세 단위로 연령을 구분하였을 때, 70~79세 환자가 전체의 2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전체 환자의 94.4%가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였다. 시도별로 구분했을 때, 전체의 23.3%가 서울 소재 병원에 내원한 환자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계절 별로 구분하여 Pearson's correlation test를 수행한 결과, 겨울철 일 별 내원 환자 수는 해당 일의 최저기온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0.214$, $p=0.045$). 또한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수행 결과, 상대습도, 평균풍속, 강수량, 신적설량 등의 교란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일 별 최저기온이 8°C이하일 때, 기온이 낮을수록 내원 환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및 결론 겨울철에 급성 심근경색을 주상병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수는 최저기온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최저기온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표본자료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상요인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상태 등의 부가적인 요인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여, 심근경색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